

‘연속 위닝 시리즈’ KIA, 완벽히 선두 굳힐까

20~22일 롯데전·23~25일 NC전

지난주 5승 1패... 2위와 5.5경기 차
롯데에 3승 1무 7패 약세 극복해야
투타서 자신감 충전은 긍정적 요소



지난주 키움이어로
즈와LG트윈스를상대
로 연속 위닝 시리즈에
성공한 KIA타이거즈

가 선두 굳히기에 돌입한다. KIA 선수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를 잡고 확실하게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KIA는 지난 주중 키움에게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긴 뒤 주말에는 LG에게 싸늘이를 성공하며 서울 원정 6연전을 5승 1패로 마쳤다. 이 사이 LG는 7경기 차 3위로 내려섰고, 2위로 올라온 삼성과는 5.5경기 차를 유지했다.

투타에서 균형 잡힌 활약을 펼친 것이 고무적이었다. KIA는 지난주 여섯 경기에서 9실점(평균 1.5실점)만 허용하는 잔물 수비를 펼쳤다. 팀 평균 자책점이 1.52,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가 1.11로 모두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주 여섯 경기에서 36득점(평균 6득점)으로 실점의 네 배에 달하는 점수를 뽑아냈다. 팀 평균 타율이 0.311,



KIA타이거즈가 20일부터 롯데자이언츠와 홈 주중 3연전, 23일부터 NC다이노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라우어(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맞대결에 선발 등판해 KBO 리그 데뷔 첫 승을 챙긴 후 동료들의 물세례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OPS(출루율+장타율)가 0.843으로 롯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홈런 7개를 생산하며 세 번째로 많은 대포를 쏘았다.

●롯데전,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롯데는 지난주 3승 2패로 무난한 흐름을 탔다. 주중에는 두산에 상대로 1경기 가 우천 취소된 가운데 1승 1패를 나눠가진 뒤 주말에는 키움에게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순위는 8위로 변동이

없었지만 가을야구권 마지노선인 SSG랜더스를 2.5경기 차로 추격하며 불씨를 살렸다.

KIA는 올 시즌 유독 롯데에게 약했다. 11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7패로 크게 열세에 있고, 최근 3연속 루징 시리즈를 떠안았다. 특히 지난 5월21~23일에는 10구단 체제 후 최초로 선두가 꼴찌에게 스윙을 내주는 굴욕을 안았고, 6월26일에는

2024 KBO리그 순위		(19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16	68	46	2	0.596	-
2	삼성	117	63	52	2	0.548	5.5
3	LG	114	60	52	2	0.536	7
4	두산	119	61	56	2	0.521	8.5
5	SSG	115	56	58	1	0.491	12
6	KT	116	55	59	2	0.482	13
7	한화	113	52	59	2	0.468	14.5
8	롯데	110	50	57	3	0.467	14.5
9	NC	112	49	61	2	0.445	17
10	키움	114	50	64	0	0.439	18

한·미·일 프로야구 최다인 13점 차를 역전
당하며 치욕을 당했다.

KIA는 황동하와 양현종, 김도현이 선발로 나선다. 지난주 네일이 주 2회 등판을 소화하도록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하면서 내일-황동하-양현종-김도현-라우어 순서로 재편된 상황이다. 황동하와 양현종은 롯데에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선발 등판해 승리가 없었고 김도현은 첫 선발 출격이다.

롯데는 김진욱과 박세웅, 반즈가 올라올 전망이다. 지난주 화요일 경기가 우천 취소돼 선발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외인 원투펀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KIA는 김진욱에게 2경기 9이닝에서 6실점을 안기며 강했으나 박세웅과 반즈에게는 각각 2경기 14이닝 2실점, 2경기 13.2이닝 2실

점으로 고전했다.

●NC전, 공격 본능을 깨워라

NC는 지난주 5전 전패로 최악의 흐름에 빠졌다. 안방에서 6연전을 치렀음에도 주중에 SSG에 2패(우천 취소 1경기)로 루징 시리즈를 안았고, 주말에는 삼성에 스윙을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 사이 순위는 7위에서 9위까지 곤두박질쳤고, 가을야구권과는 5경기 차까지 멀어졌다.

KIA는 올 시즌 NC에게 가장 강했다. 12경기에서 10승 2패를 거두며 네 차례 3연전을 모두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다. 특히 창원 원정에서는 6전 전승으로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KIA는 라우어와 네일, 황동하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주 KBO 리그 데뷔 첫 승을 챙긴 라우어는 기세를 몰아 NC와 첫 맞대결에 도전한다. 네일은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위력투를 펼쳐 승리를 챙겼고, 황동하는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11이닝 4실점으로 2승을 챙긴 좋은 기억이 있다.

NC는 신민혁과 이재학, 김시훈이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KIA는 신민혁을 상대로 두 경기 3.2이닝에서 11실점, 이재학을 상대로 한 경기 4이닝에서 5실점, 김시훈을 상대로 세 경기 12.1이닝에서 14실점을 안기며 여섯 경기 모두 승리를 챙긴 바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타이거즈, 전팬 야구 동호회 ‘ARES’ 홈경기 초청

지난해 KBO컵 팬 대회 준우승팀

KIA타이거즈가 지난해 팬들을 대표해 동호인 야구대회에 나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아마추어 팀에게 200만원 상당의 공인구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홈경기 초청으로 뜻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KIA는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 아마추어

야구팀 ‘ARES’를 초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승리 기원 시구에는 임상현 ARES 감독이 나서고, 시타는 여성 참가자였던 이다영 선수가 맡는다.

ARES는 전북 순창 고추장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야구팀으로 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최한 ‘2023 KBO컵 팬 동호인 야구대회’에 KIA 팬을 대표해 출전,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한규빈 기자

영암민속씨름단, 삼척장사대회 세 체급 석권

백두·금강·소백... 단체전 우승도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삼척장사대회에서 세 체급 장사타이를 획득과 단체전 정상 차지했다.

‘모래판 괴물’ 김민재(22)는 지난 18일 강원 삼척시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4 민속씨름 삼척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이하)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정창조(수원시청)를 3-0으로 제압하고 황소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김민재는 16강전부터 장사결정전까지 장형호(증평군청), 박중현(의성군청), 장성우(MG새마을금고), 정창조를 상대로 단 한판도 내주지않고 승률 100%로 장사에 등극했다.

이번 우승으로 김민재는 백두장사 11회(2022 단오, 2023 설날·문경·보은·단오·제천·안산, 2024 문경·단오·보은·삼척)와 천하장사 1회(2022) 등 개인 통산 11번째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금강의 호랑이’ 최정만(34)은 지난 16일 열린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에

서 정석진(정읍시청)을 3-0으로 꺾고 꽃가마를 탔다.

최정만은 이번 장사 등극으로 금강장사 역대 최다인 21회(2013 설날, 2014 설날, 2015 한식, 2016 단오, 2017 단오, 2018 설날·단오, 2019 음성·영월·창녕, 2020 단오·평창 3차·왕중왕전, 2022 단오·천하장사, 2023 설날·평창·단오, 2024 평창·단오·삼척)를 기록했다.

이동혁(23)은 지난 14일 열린 소백장사(72kg이하) 결정전에서 이주영(태안군청)에 3-2로 승리하며 생애 처음으로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영암민속씨름단은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영암민속씨름단은 지난 18일 단체전 결승(7판4선승제)에서 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4-1로 물리쳤다.

첫 경기에 나선 장영진이 상대 이병용에게 1-2로 졌지만 최정만, 곽수훈, 김민재, 이동훈이 차례로 상대를 모두 2-0으로 승리하며 역전 우승을 일궜다.

최동환 기자

페퍼저축은행, 日 가와사키서 담금질 돌입



22일까지 타마가와 아레나서
NEC·가에쓰대와 연습경기도

‘V-리그 여자부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새 시즌을 앞두고 일본에서 담금질에 돌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자매 구단인 NEC 레드 로켓츠와 두 번째 합동 훈련을 통해 장소연 신임 감독이 천명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계적인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8일 치바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훈련지인 가나가와 가와사키에 입성했다. 광주에서 인천, 나리타, 가와사키까지 이동에만 10시간이 넘게 소요된 강행군이었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장소연 감독과 이용희 수석 코치를 필두로 두 시즌 연속 주장을 맡게 된 박정아와 새로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한 이원정과 한다혜, 임주는, 이에림, 장 위, 바르바라 자비치 등 선수 18명이 참가했다.

지난 2022년 자매 결연을 맺은 NEC 레드 로켓츠의 훈련장인 타마가와 아레나를 베이스캠프로 삼은 페퍼저축은행은 19일부터 22일까지 휴식일 하루를 제외하고 사흘간 기본기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세 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한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단이 19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열린 NEC 레드 로켓츠, 가에쓰 대학교와 연습경기 3파전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19일 오전 기본기 훈련을 소화한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NEC 레드 로켓츠와 상견례를 갖고 기념품 교환식을 진행한 뒤 가에쓰 대학교까지 3파전으로 각각 2세트씩 총 4세트의 연습경기를 가지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후와 22일 오전에는 NEC 레드 로켓츠와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일본 전지훈련을 앞두고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을 베이스 캠프로 기본기 강화에 주력해 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등과 연습경기를 통해 새로운 색깔을 얼마나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번 전지훈련 역시 장소연 감독이 추구하는 배구를 입혀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일본 팀들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수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한달 남짓 남은 KOVO컵에 앞서 실전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감독은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이동했지만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며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완성도를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디테일한 배구는 기본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단단하다면 위기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며 “비시즌 동안 경기력을 갖추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도 선수들을 두루 점검할 계획인데 디테일하게 준비한 부분들이 실전에서 잘 나타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가와사키=글·사진 한규빈 기자